

01 교회소식

“사랑과 꿈을 먹고 자라요~”

만민선교원과 아동, 학생주일학교 꿈나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며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영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자

독생자를 주시고 천국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시고 참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03 기획특집

축복을 받는 비결

사랑과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통해 살펴본다.

04 간증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권능의 기도로 양수가 채워져 순산한 김채린 집사와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경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간증.

# 만민뉴스

제648호 2014년 8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 주는 영재 교육

만민선교원 특별 교육 프로그램, 학생주일학교 여름방학 특강



유아, 유치,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됐다. 지난 7월 7일부터 만민선교원에서는 예능위원회와 연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원아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동주일학교 교장 김현진 전도사와 만민선교원 원장 황재희 전도사가 진행하는 ‘속속 재미있는 성경’을 비롯,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Musical English’, ‘Hello English’, ‘니하오 중국어’, 음악적 재능을 키워 주는 ‘딩동댕 피아노’, ‘따리링 바이올린’, ‘타악기 배우기가 있다. 이 외에도 ‘아얌 태권도’, ‘신나는 율동’ 등 알찬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유겸 어린이(7)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주 많은데 선교원에서 다 가르쳐 주셔서 기뻐요. 그중에 태권도랑 바이올린이 제일 좋아요. 선교원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서 이제는 아침에 저 혼자 일어나고 도복도 제가 챙겨요.”라고 말했다.

만민선교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는 김소영 집사(48)는 “이것저것 가르쳐야 할 것은 많은데 학원비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민선교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선교원에서 배운 체조도 하고 영어도 하면서 즐거워해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선교원에서 한글, 수학은 물론 인성교육까지 잘 배워오니깐 굉장히 고맙죠. 제

가 교육시켰으면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매우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워졌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이 있었는데 기존의 영어, 수학 강좌 외에도 자기주도 학습, 진로 적성, 요리, 멘토링, 뷰티, GCN 방송 탐방 등이 신설됐다.

학생주일학교 교장 이재정 전도사는 “환경도, 취미도, 재능도, 개성도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빨리 찾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다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 아동교재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발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하며 행복한 것을 상상한다 해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불가능을 가늠하게 하는 보배로운 믿음과 아름다운 천국 소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생을 위한 이재록 목사의 주니어 바이블 스테디 네 번째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이 8월 22일에 발간됐다. 이 책은 ‘아는 만큼 보이는 천국’, ‘천국의 환경과 생활’,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 총 세 파트로 구성됐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천국의 오락과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아이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또한 화보로 보는 ‘찰칵! 천국 바닷속, 계절 동산, 놀이동산’ 등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일러스트는 천국을 마음으로 그릴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심어 줄 것이다.

한편, 청소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록 목사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바이블 스테디’ 외에도 미취학 아동을 위한 ‘키즈 바이블 스테디’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자

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므로 결국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지요.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을 분이 있겠는지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 줄 테니까 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대신 해서 아들을 내 놓으라.” 하면 대부분 “말도 안 된다.” 하겠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미움, 혐기, 간음, 시기, 투기, 방탕함 등과 같은 죄로 추악한 우리를 대신해 참혹한 처형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처형의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하늘의 해조차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정도였지요.

그런 슬픔을 참고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죄인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영원히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 2.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셔도 만약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죄악에 물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도 있고 천군을 보내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 죄를 지고 속죄 제물이 돼 주시고자 모든 고난을 가까이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얻게 됐고, 손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던 그 피 묻은 얼굴과 사랑의 눈빛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3.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런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진리 안에 행할 때 그 행함대로 천국의 처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즉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비유를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이 함께 공급돼야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아도 인자의 살뿐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혹은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분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지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므로 가까이 생명을 주셨고,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장차 천국에서 참 자녀들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찌 다시 범법할 수 있겠고, 또 천국의 영광을 믿는데 어찌 세상 것에 욕심을 내겠는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 독일의 한 유대인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생존자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수용자들은 모두 가스실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를 점검하던 군인이 한쪽 벽 구석진 곳에 써 있던 글씨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숙연해졌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제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한 수감자가 기록한 것이겠지요.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그가 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서도 마음에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사랑과 공의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축복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됐을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즉 말씀과 명령, 순종, 믿음의 분야를 살펴보면 '과연 나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는가?' 점검해 보자.

## 첫째 조건 '말씀과 명령'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1)

먼저,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란 성경 66권 말씀을 말한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기록한 것이다(딤후 3:16).

또한 성경에는 "여호와와 말이니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뜻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해 마음에 양식 삼으면서 즉시로 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하라고 명해 놓으신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다. '명령'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만군

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대부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준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쁨이 된다.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신 10:13)임을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한다면 이런 사람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으니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 둘째 조건 '참된 순종'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명기 28:2)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란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차원이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과 이론에 맞지 않아서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야 참 순종이라 할 수 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할 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막 9:23). 혹여 나는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 유익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자.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한 대로 즐겨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19)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사 55:10~11).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00%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편에서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사 55:8~9). 하나님 말씀이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

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신다(약 1:6~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

속하셨을 때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드렸기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 말씀이 이뤄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할 때에도 믿고 맡겼으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좇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 주요 프로그램 안내

8 2014 August 08.24-08.30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41-45
- 일곱교회 17-21
- 창세기 강해 19-23
- 축복 3
- 요한일서 강해 44
- 요한계시록 강해 26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4-8
-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 하나님을 만나려면

####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1 (이수진 목사)
- 영의세계 15-16 (이희선 목사)
- 생명수 13/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신동호 목사)
- MIS강의 16/ 열재앙 1-3 (정구영 목사)
- 그릇 준비(김수정 목사)
- 세가지 시험(김승신 전도사)
- 믿음의 분량 2 (천우진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5
- 옛날 옛적에 7
- 모두 드려요 13
- 흥겨운 소리 9
- English 3-4
- 만민자킴이 8
- 알콩달콩 어버버 울동 15
- 찬양 드려요 1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2
- 황기 19
- 뷰티풀 라이프 7
- 플로리스트 12

#### 해외성회 및 교육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 회상 14
- 2013 기관장 교육 9-10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참 목자의 표본이신 당회장님, 존경합니다!”

저는 해군 장교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 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통해 강사 이재록 목사님을 만난 후에는 러시아 교계의 정세 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지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지교회로 가입했고, 2007년 3월에는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됐으며, 2008년부터는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회장인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손수건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됐지요. 저는 큰 은혜를 받은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8월 초, 한국을 방문해 ‘2014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저는 영적인 불꽃춤에 대해 깊이 깨우쳤습니다. 러시아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이나 저서들로 보고 들긴 했지만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 그 감동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과 은사집회, 체육대회, 캠프파이어뿐만 아니라 수련회 기간 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히, 캠프파이어 때 이재록 목사님께서 마음 다해 찬양하시며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안겨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목자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저도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 주는 진실한 목자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강력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말씀을 확증하시는 이재록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귀한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러시아와 러시아어권 나라들에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



태아의 모습이 보이나 주변에 양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임신 30주 때).

### “조기 양막 파열로 양수가 쏟아졌으나 권능의 기도를 받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김채린 집사 (1대대 1교구, 32세)

지난 4월 2일 저녁, 임신 중인 제 몸에서 무언가 흘러 내렸습니다. 심상치 않아 다음 날 새벽,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조기 양막 파열’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수가 다 쏟아졌어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남편과 상의해 보세요.”

양수(羊水)는 자궁의 양막(羊膜) 안에 있는 걸쭉한 액체로서 태아의 발육을 도우며 출산할 때에 흘러나와서 분만을 쉽게 해 줍니다. 그런데 임신 19주째 양수를 다 쏟았으니 태아에게 이상 없이 임신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니다. 임신 10주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생각했지요. 예능위원회 위원장인 이희진 목사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부와 양가 가족이 온전한 십일조와 주일성수를 하는지 돌아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셋집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목돈이 없어서 나중에 십일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곧바로 십일조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침 이사를 위해 준비해 둔 목돈이 있었지요.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인색하게 드린 것도 회개했고, 양가 가족도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관해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마침 임신 21주 때, 산상기도를 다녀오신 당회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양수도 채워지며 태아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게 지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임신 22주, 23주 때까지 세 차례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조금씩 채워져 최소한의 양수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임신 23주부터 29주까지 집중 관찰실에서 지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양수가 조금밖에 없으니 태아가 위험하다고 유도분만을 권했지만 기도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태동도 활발해지자 의사 선생님들도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19주째 양수가 쏟아진 상황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로 보호받아 건강한 딸을 출산한 우리 교회 이현정 집사님이 딸과 함께 찾아와 “집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것이니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며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마침내 임신 33주가 되는 지난 7월 9일,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뜻에서 이름을 ‘성음’이라 지었지요. 현재 저와 아들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수과소증 상황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약 100일간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제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흥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강동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서울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